

도 내가 깨어나는 느낌이 들어. 세상이 밝아지는 것 같은 느낌이랄까.

작가가 되라는 것이 아니라 마케터나 경영자로서, 사물의 관점에서 세상을 보는 훈련을 해보라는 권유야.